

조상들의 이웃과 나누는 지혜와 사랑 실천하자

필라델피아 홀리엔젤스 한인 천주교회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음식 나누며 향수 달래



필라델피아 홀리엔젤스 한인 천주교회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를 마친 후 김순진 신부가 신자들에게 차례상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홀리엔젤스 한인 천주교회(주임 김순진 요셉 신부)는 지난 11일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했다.

새벽부터 가뭄으로 갈라진 땅바닥 사이로 가을비가 흠뻑히 내리고 날씨는 서늘했지만, 추석 전날밤 고향집에서 가족과 함께 바라본 둥그런 보름달을 떠올리며 척박한 이민자의 땅에도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떠나신 조상 친지 은인들을 기억하며 이웃과 서로 나누며 살아온 그분들의 아름다운 삶의 지혜와 사랑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김 신부는 복음 말씀에 이어 강론을 생략하고 제대 앞에 차린 차례상에 신자들을 대표해 김순진 신부가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분향했으며 연령회가 이끄는 위령기도를 존경과 효를 갖추어 정성껏 바쳤다. 제대 앞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신자들이 신청한 277명의 미사 지향자 명단이 올려졌다.

미사 후 구역장들이 모여 정성껏 마련한 차례상 음식은 김순진 신부가 제대 앞에서 참석한 모든 신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추석 명절 때 온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고 복을 기원했던 풍습에 의미를 담고, 차례상의 앞 줄 음식부터 과일, 송편, 전, 꽃감 등의 선물을 받고 멀고먼 타국에서 고향을 가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랠다.

양경숙 명예기자